

식민유산의 건축적 기호와 번역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기억 재현과 번역의 정치학*

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1. 들어가며

2023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는 갈등과 폭력의 기억을 다루는 이른바 ‘갈등기억유산’의 등재가 재개되었다.¹⁾ 이러한 유산은 등재 기준 (vi) 번을 충족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6010935).

1) 2023년을 기점으로 설정한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가 ‘최근 갈등 및 부정적·분열적 기억과 관련된 유산(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의 등재 논의를 재개하고 실제 등재를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해당 유형의 유산은 2018년 국제적 기준 미비를 이유로 잠정적으로 검토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3년 제18차 특별세션 결정(Decision 18 EXT.COM 4)을 통해 등재를 위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 기억 유산(ESMA Museum and Site of Memory: Former Clandestine Center of Detention, Torture and Extermination), 제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 추모 유적(Funerary and memory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르완다 집단학살 추모 유적(Memorial sites of the Genocide. Nyamata, Murambi, Gisozi and Biseseo) 등이 등재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관련 기억유산의 등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유형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3, p. 11). 그러나 일본은 20세기 초 자국이 아시아에 일으킨 ‘갈등’, 즉 자국의 식민 통치 관련 유산을 (vi)번이 아닌 다른 등재 기준 하에 등재시키며 과거의 부정적 역사를 숨기고 있다. 일례로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일련의 일본 유산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등재기준 ii, iv)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여기서 등재기준 (ii)는 특정 문화권 내 건축·기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기준 (iv)는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건축적·기술적 총체의 사례’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사건과 기억의 직접적 연관성을 요구하는 기준 (vi) 대신, 기술적·형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준 (ii)와 (iv)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도적이다.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군함도의 실상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과거는 숨긴 채, 산업혁명을 일궈낸 증거로서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재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유산이 지닌 정치적·역사적 맥락을 거세하는 효과를 낳았다.

당시 일본은 해당 사실을 추후 명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역사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2024년 일본 ‘사도금광산(Sado Island Gold Mines)’(등재기준 iv)의 세계유산 등재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해당 기준을 내세워, 식민지 수탈이라는 가혹한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소거하고자 했다. 다케다(Takeda, 2020)는 일본 정부가 복잡하게 얽힌 기억의 정치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번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 사례로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역’이란 표현을 ‘forced labour’가 아닌 ‘forced to work’로 쓰기를 고집했던 상황을 언급한다. 두 표현이 영어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번역될 경우, 보다 ‘바람직한’ 표현이 되도록 원문을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20세기 초 일본이 자행한 전쟁 관련 기억을 전달함에 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다시쓰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단순한 민족적 기억의 공간을 넘어,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그 기억을 국제적으로 전달하는 대항 담론의 거점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구성된 역사 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역사’를 복원하고 이를 글로벌 관점에서 전달하는 핵심 기제로서 번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미 다수의 식민 건축유산이 기억박물관²⁾으로 재구성되어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전시 콘텐츠를 분석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적 기호의 의미 변용이 외국인 관람객의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장과 같은 명시적 기호보다, 입지라는 거시적 공간 기호와 패놉티콘(panopticon),³⁾ 패통(牌通), 격벽장(隔壁場)과 같은 건축 구조에 주목한다. 일본이 기준 (iv)를 통해 건축적 유형학 뒤로 식민 권력을 은폐하려 했다면, 본고는 반대로 이러한 건축 구조에 내재된 비가시적 식민 권력의 기제들이 전시 번역을 통해 어떻게 재현 및 해체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기억박물관에서의 번역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식민 기억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억 정치의 실천으로 기능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건축적 기호의 번역이 외국인 관람객의 역사 이해와 공감 형성에 어떤 제약이나 변화를 유발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억박물관 번역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고에서 ‘기억박물관’이라는 용어는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Kim, 202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2에 기술한 ‘memorial museum’과 ‘memory museum’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 ‘panopticon’은 파놉티콘, 판옵티콘, 패놉티콘, 팬옵티콘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도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본고 <표 1> 참조).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정해진 표준 표기는 없으나 현저함에 가깝게 적으라는 입장이다(온라인가나다, 2025. 11. 28.).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접 인용 외에는 ‘패놉티콘’으로 통일해 표기한다.

2. 기억의 번역

2.1 기억의 번역

본 연구는 기억저장소로서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근대 식민 건축유산과 번역의 관계를 번역학, 기억학, 유산학, 관광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언어적 텍스트의 번역을 넘어, 건축적 기호와 장소성이 지닌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공간의 번역 개념을 해당 유산에 확장 적용하고자 함이다. 이때 공간의 번역은 물리적 건축 기호라는 원텍스트가 안내판, 전시 패널 등의 매개 언어를 통해 2차 텍스트로 치환되고 재맥락화되는 담론적 전이 과정을 포괄한다.

최근 국제 번역학계에서는 번역과 기억의 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2019)의 ‘기억(Memory)’ 항목에서는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기억과 번역의 접점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며, [...] 과거를 현재화하는 방식(Terdiman, 1993)으로서의 기억은 결코 객관적이거나 맥락 독립적이지 않다. 기억은 동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맥락에 내재화하는 재구성 행위로, 특정 의제를 진전시키는 힘을 지닌다. 따라서 기억의 작동 방식이 번역의 작동 방식과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은 명백하다. [...] 더 넓은 의미에서 번역은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의 구조와 본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즉, 무엇이 번역 대상으로 선택되는가는 해당 문화적 생산물에 내재된 편향과 목표를 투영하는 축적물이 된다. [이는 기억박물관이 전시하고 번역하기로 선택한 대상에 이미 번역 주체의 정치적 의도나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억이 있는 곳에는 망각 또한 존재하기에, 번역은 (비)의도적 기억의 상실, 방치 혹은 억압을 발생시키는 핵심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pp. 320-321)
[필자 번역]

이처럼 번역학적 기억 연구는, 과거의 정보를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번역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지속, 변형, 은폐되는가라는 번역의 정치학을 탐구한다. 이에 따라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Memory』(2022)는 전쟁, 제노사이드 등 트라우마적 과거 기억의 번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며 두 학제 간의 접점을 넓혔으며, 위인케와 스하인스(Jünke & Schyns, 2023) 역시 폭력적 과거의 기억 번역에 주목하여 관련 논의를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 허우(Hou, 2023) 또한 이러한 기억 번역 연구가 최근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기억박물관 번역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록 최근 들어 박물관 번역의 이데올로기성과 정치성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나(Kim, 2020; 자세한 내용은 2.2 참조), 식민지 근대 건축유산의 공간 기호와 번역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적 기호와 장소성의 번역 문제를 기억 재현과 번역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억 번역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2.2 기억박물관의 번역

기억박물관은 갈등, 폭력, 식민 경험 등 역사적 트라우마를 전시 서사를 통해 재구성하는 공간으로, 본고에서는 ‘memorial museum’과 ‘memory museum’의 외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룬다. 윌리엄스(Williams, 2007)는 ‘memorial museum’을 “집단적 고통을 야기한 특정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특수한 형태의 박물관”으로 정의한다(p. 8). 이는 재난사 박물관(museums of catastrophic history)(Hindley et al., 2024) 또는 트라우마 박물관(trauma museum)(Deane-Cox and Spiessens, 2022)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아르놀트 드 시민(Arnold-de Simine, 2012)은, ‘memory museum’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서사적·매체적 재현 방식을 통해 관람객의 정서적, 윤리적 개입을 유도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관람객은 과거를 매개된 경험으로 수용하게 되며, 특정한 윤리적 반응을 요청받게 된다.

기억박물관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 개념과 연결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집단 기억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공동체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유산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산학계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과거의 폭력과 고통의 역사를 담은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이현경, 2018).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지침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이라는 범주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4, p. 9).

기억박물관에서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기억의 구성 방식 자체에 개입한다. 딘콕스(Deane-Cox, 2014)는 프랑스 오라두르쉬르글란 기억 박물관(Centre de la mémoire d'Oradour-sur-Glane) 사례를 통해 번역이 보철적 기억(prosthetic memory) 형성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첸과 라오(Chen & Liao, 2017)는 대만 2·28국가기념관을 분석하며 번역이 역사 서사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기억을 재구성함을 밝힌다. 라이언과 퀸(Ryan & Quinn, 2011) 및 퀸과 라이언(Quinn & Ryan, 2016)은 아일랜드 더블린성(Dublin Castle) 사례에서 투어 해설이 식민 과거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거나 생략하는지를 분석한다. 무자이니와 여(Muzaini & Yeo, 2005)는 싱가포르 창이박물관(Changi Chapel and Museum)을 전쟁 기억이 형성된 ‘기억 경관(memoryscape)’으로 보며, ‘현장성(in situ)’과 해설 방식이 관람객의 역사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억박물관의 번역 실천에 주목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김(Kim, 2020)은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사례를 통해 박물관 번역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와 보철적 기억 형성에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임을 분석하였다. 즉 번역은 관람객이 피해자의 경험과 역사적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역사 인식과 윤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번역이 기억의 재현 방식 자체를 구성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억박물관에서 번역이 중립적 전달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적 구성과 재서사를 수행하는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2.3 공간의 텍스트성과 장소기호학적 번역

공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는 장소기호학(geosemiotics)⁴⁾적 접근과 관련하여 라오(Liao, 2019)는 3차원 공간과 번역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연구

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는 박물관의 건축 구조, 동선, 표지 체계가 번역과 결합하여 관람객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스코틀랜드 성명고 종교박물관(St Mungo Museum of Religious Life and Art) 사례에서 그는 동일한 공간이라도 번역 제공 여부에 따라 관람객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현주(2021)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과 번역의 결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소기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우투(Souto, 2018)는 베를린의 오토바이트박물관(Otto Weidt Workshop for the Blind Museum)과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사례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기호적 장치로 기능하며 트라우마를 전달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그는 건축 재료, 구조, 배치, 동선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이 관람자의 시선과 경험을 구성하며 의미 생산에 개입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동시에 ‘장소적 진정성(authenticity of the place)’(p. 7)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는 유산 공간에 남아 있는 구조적 흔적과 역사적 층위가 관람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또한 이러한 장소적 진정성을 지닌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공간 자체가 기억 재현과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기호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니더(Neather, 2024)는 박물관 공간이 건축, 장소, 전시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의미 체계를 형성한다고 보며, 특히 박물관으로 전용된 건축물은 기존 기능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호적 의미를 생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기호 체계이며, 번역은 공간 기호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드러내거나 은폐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소기호학적 번역의 관점에서 서대문형무소의 건축 구조에 내재된 비가시적 식민 권력의 기체들이 전시 매체를 통해 어떻게 국·영문 텍스트로 치환되고 재맥락화되는지 비판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4) ‘geosemiotics(장소기호학)’는 스콜론과 스콜론(Scollon & Scollon, 2003)이 제안한 개념으로, 공간 내 의미 구성 방식을 언어적 표지, 물리적 배치, 이동 경로, 시각적 요소 등 다양한 기호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한다. 이는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가 생성·유통되는 기호 환경으로 이해한다.

3. 식민 유산의 건축적 기호와 번역의 실제

본 연구는 사형장이나 고문실처럼 물리적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한 의미를 드러내는 공간을 넘어, 건축 구조에 내재된 식민 권력의 비가시적이고 일상화된 작동 방식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입지라는 거시적 기호와 패넌티콘, 패통, 격벽장 등의 미시적 건축 장치를 분석의 출발점인 시각·공간적 원 텍스트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는 물리적 건축 기호와 그것이 파생시키는 담론을 모두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안내판, 전시 패넌, 오디오 가이드, 리플렛, 도록 등은 단순한 언어 매체가 아니라, 식민지 건축 장치가 지닌 권력 기제와 공간적 의미를 오늘날의 기억박물관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전이시킨 2차적 번역 텍스트로 기능한다. 본 장에서는 이 다층적 매체들이 건축적 기호의 원형을 어떠한 언어적·담론적 전략으로 재맥락화하고 변형하는지 그 실증적 번역 과정을 미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기호가 언어적 기호로 치환·재현되는 번역의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3.1 거시적 기호 - 입지적 장소성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근대 식민건축유산으로서 지닌 물리적 현존성과 장소성이 식민 기억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주 전시관인 보안과 청사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감옥 입구를 형상화한 아치형 철문을 지나 본 전시실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공간에는 ‘억압과 공포의 상징 서대문형무소’라는 주제 패넌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어서 ‘현저동 101번지’라는 제목의 입관 환영 패넌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 동선은 ‘현저동 101번지’라는 지번 자체가 일제강점기 당시 억압과 공포를 환기하는 장소기호학적 상징으로 기능했음을 드러낸다. 즉, 기억박물관의 전시 서사 구조가 장소성을 구성한다는 선행연구의 시각 속에서(박소현, 2020; 박영원, 2025), ‘현저동 101번지’는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곳, 혹은 사회적 격리를 상징하는 장소 기호로 작동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 패넌의 원문은 서대문형무소의 입지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피식민인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감시와 통제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상징적

장치였음을 강조한다(아래 텍스트 참조). 특히 영은문과 독립문이라는 상징적 장소와의 인접성을 언급함으로써 식민 권력의 공간 전략을 드러낸다.

<패널 - 현저동 101번지>

원문: 서대문형무소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는 조선 후기 북쪽 의주로 가는 큰 길인 의주로가 위치한 곳으로, 사대문 안과 밖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에 주변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들었던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 현 독립관)이 있었고, 1897년에는 영은문이 없어진 자리 앞에 독립문(獨立門)이 세워졌다. 일제는 이곳 현저동에 대규모의 근대 감옥을 설치하여, 이곳을 오가던 한국민에게 식민지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였고,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지배 도구로 이용하였다.

번역문: Street No. 101 of Hyeonjeo-dong located at Seodaemun Prison was a main traffic route linking Uiju Road northwards. **Dongnimmun (Independence Gate) was built in its vicinity.** Japanese imperialists installed a large-size prison around that area as **a tool for ruling** the colony. [강조 필자]

반면, 번역문은 ‘Dongnimmun (Independence Gate)’라는 고유 명칭을 언어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역사적 배경지식이 없는 영어권 독자에게 이러한 음차 및 직역 표기는 단순한 지표적 기호에 그칠 뿐, 원문이 지닌 역사적 서사를 전달하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원문에 명시된 일제의 복종 강요와 감시·통제 기제를 “a tool for ruling”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축약하면서, 원문이 구축한 ‘공간의 정치성’과 장소의 역사적 특수성은 심각하게 약화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번역은 문화적 맥락의 공백과 개념의 추상화가 결합하여, 식민 권력의 구체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

오디오 가이드에서는 원문의 정보가 축소되지 않고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오역 평가가 아니라, 원문에 내재된 서사 구조가 번역문이라는 이중 언어적 매개를 거칠 때 타 언어권 독자에게 유발하는 장소성의 전이 양상이다. 원문 자체가 서대문형무소의 입지를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조건과 연결해 상세히 설명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아래 참조, 강조 필자).

<오디오 가이드 - 현저동 101번지>

원문: 서대문형무소가 위치한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 일대는 조선 후기 북쪽으로 향하는 가장 큰 길이 있었으며,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고 각 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물류나 사람의 이동과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연 지형으로 인왕산과 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북으로 가파른 무악재 고개가 가로막고 있어 수감자들의 통제에 매우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제는 이곳에 감옥을 신축하여 그 길을 오가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언제라도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각인시켰으며, 서대문형무소를 일제 식민지 권력의 절대성을 상징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번역문: [...] **With Inwangsan Mountain and Ansan Mountain surrounding it like a folding screen and the steep Muakjae ridge separating it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topography of this place was perfect for keeping prisoners under control [...].** [강조 필자]

이러한 서술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며, 결과적으로 독립문과의 역사적·정치적 관계성보다 자연 지형적 특성이 더욱 부각된다. 역사적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 한국어 독자와 달리, 문화적 맥락이 결여된 외국인 관람객에게 인왕산이나 안산 등의 구체적인 자연 지형 묘사(folding screen, steep ridge)는 인지적 무게를 자연 조건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 즉, 번역문이 원문의 후반부 식민 지배 서사까지 충실히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반부 입지의 지형 서사가 주는 심상적 선명함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는 식민 권력의 전략적 배치의 산물이라기보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자연 공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강화된다. 이는 입지의 정치성이 자연 지형 중심의 서사로 전환되면서 비가시화되는 효과를 낳으며, 거시적 기호 차원에서 식민 기억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박물관에서는 서로 다른 매체 간 정보의 단순 반복을 지양하고, 상보적 구성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기억박물관에서는 갈등의 기억을 전달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보철적 기억 형성을 위해서는 기호학적 번역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복원하고, 관람객이 타자의 고통에 공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호학적 번역의 정교화란, 단순히 문장의 표층적 의미만을 전달하는 번역이 아닌, 텍스트가 공간 내에서 자아내는 시각적·서사적 무게감까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 타 언어권 관람객의 인식적 왜곡(자연 요인에 의한 공간 조성)을 능동적으로 방지하는 서사 전략을 의미한다.

현재의 번역 양상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정교화가 미흡함이 드러난다. 첫째, 전시 패널의 경우 자주독립의 상징인 독립문과 억압의 상징인 형무소가 이루는 시각적 병치가 충분히 재현되지 못한다. ‘Dongnimmun’이라는 번역어의 물리적 노출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지식이 없는 영어권 독자에게 이는 상징적 긴장감을 자아내지 못하는 단순한 지표적 기호로 기능하여 식민 억압의 현장이라는 맥락적 토대를 약화시킨다. 둘째, 오디오 가이드의 경우 원문의 지형 중심적 서사가 비판적 재맥락화 없이 기계적으로만 번역되면서 역효과를 낳는다. 구체적인 자연 지형 묘사에 서사의 인지적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쏠림에 따라, 식민 권력의 전략적 배치라는 정치적 의미가 가려지고 공간을 자연적 조건 중심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식민 기억을 순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수감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규율했던 미시적 건축 장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3.2 미시적 기호 - 감시와 규율의 건축적 장치

3.2.1 패놉티콘 - 서구 근대 감옥 체계의 식민적 변용

메이지유신 이후 일제가 서구 권력 체제에 진입하기 위해 도입한 서구식 근대 감옥 체계는, 식민지 대만뿐만 아니라 한반도로도 확장되며 공간적으로 구현되었다(Song, 2022). 서대문형무소는 이러한 일제의 ‘문명화’ 기치와 제국주의적 열망이 투영된 대표적인 식민지 감옥 건축이다. 그중에서도 중앙사와 연결된 10·11·12옥사(이하 ‘중앙사-10·11·12옥사’)와 격벽장의 패놉티콘 구조는, 일제가 ‘근대적 감옥 체계의 도입’이라는 문명화의 명분 아래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하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 아래 두

고자 했던 식민지적 통제 기제를 드러낸다.

패놉티콘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계몽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해 제안한 원형(圓形) 감옥 구조로, 시선의 비대칭성을 통해 수감자의 자기 규율과 내면적 통제를 유도하는 체계이다. 이는 신체에 직접 형벌을 가하던 중세적 처벌에서 벗어나 고립과 규율을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근대적 자유형으로의 전환이며, 처벌의 중심이 신체적 고통에서 정신과 일상에 대한 통제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Foucault, 2005).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의 패놉티콘은 이러한 근대적 인도주의 담론이 식민지 권력에 의해 변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앙사·10·11·12옥사를 중심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식민 통제 장치로 재구성되었는지 고찰하고, 5) 이러한 맥락이 박물관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삭제되는지 분석한다.

서대문형무소의 패놉티콘 구조를 처음 접하는 지점은 정문 외부 안내판과 보안과청사 앞 안내판이다. 해당 텍스트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서대문형무소를 개괄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정문 외부/보안과청사 앞 안내판>

원문: 서대문형무소는 일본제국주의가 지은 근대식 감옥이다 [...] 옥사는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수감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형태인 패놉티콘 구조로** 만들어졌다 [...].

번역문: Seodaemun Prison is a modern prison built by Japanese imperialists [...] The prison buildings are made of red bricks and set up in a **panopticon-shaped structure that allowed a watchman at the center to monitor inmates effectively** [...]. [강조 필자]

서대문형무소는 벤담이 제안한 패놉티콘의 감시 원리를 공유하지만, 물리적 형태는 원통형이 아닌 방사형(부채꼴 구조)에 가깝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안내판 원문 자체가 서대문형무소의 패놉티콘 구조를 일체의 식민지적

5) 서대문형무소 내 ‘패놉티콘’ 관련 용어는 매체별로 상이하게 번역되고 있으며(<표 1 참조>), 일부 사례에서는 ‘quasi-panopticon’처럼 원형과의 차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의 불균등성은 전시 전반의 기호 체계가 일관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관람객의 선택적 정보 수용 양태를 고려해 특히 관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억압과 강제 규율의 장치가 아닌, 단순한 ‘효과적 감시 형태’라는 근대 건축의 기능주의적 관점으로만 개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원문 자체에 내재된 서사의 한계는 번역문에서 “panopticon-shaped structure”로 기계적으로 번역됨에 따라 공간의 정치성을 더욱더 비가시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관람객은 공간에 내재된 권력 구조와 폭력성을 읽어내기보다, 안내판의 도식과 실제 공간 사이의 형태적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만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박물관 진입 단계에서부터 공간 해석의 탈정치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관람객이 페놉티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접하는 첫 지점은 중앙사 내부 벽면 패널이다(아래 ‘감시와 통제’ 참조). 해당 텍스트는 페놉티콘을 근대 감옥 구조의 원리로 소개하며, 서대문형무소의 부채꼴 배치와 감시 체계를 설명한다(아래 참조, 강조 필자).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 설명이 축약되거나 세계사적 맥락이 누락됨에 따라, 단순히 페놉티콘의 이론적 배경과 식민지적 이식의 인과성이 소거되는 것을 넘어, 근대적 감옥 체계의 도입이라는 문명화의 명분 아래 독립운동가들을 상시적이고 세밀하게 감시·규율하고자 했던 일제의 식민지적 통제 기제 자체가 비가시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관람객은 해당 구조를 근대 감옥의 보편적 발전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보다, 개별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근대적 제도 도입이라는 명명 뒤에 숨은 식민지 권력의 구조적 폭력성과 감시 기제가 은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시 서사의 한계와 번역문의 개념 소거 현상이 역사관에서 발간한 공식 도록 텍스트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도록의 번역문은 본 패널의 번역문과 완전히 동일하며, 원문(서대문형무소, 2014, p. 100)의 경우에도 접속사 등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페놉티콘의 핵심 통제 기제를 누락한 서사 구조를 그대로 공유한다(<표 1> 참조). 이는 전시 공간의 일방향적 서사가 활자 매체로 기계적으로 복제되는 과정에서 식민 기억의 탈정치화가 다층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감시와 통제>

원문: 근대식 감옥의 구조는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제러미 벤담에 의해 고안된 파놉티콘(Panopticon)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형무소도 중앙간수소를 중심으로 옥사를 부

채플 모양으로 배치하여 간수가 한 곳에서 모든 곳을 감시·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외벽 담장에 수감자들의 탈주를 막고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높이 10m의 망루를 설치하였고, 감방 벽면에는 시찰공(감시창)을 뚫어 수감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다. 또한 **일본인 간수들**은 총·칼을 소지한 채 수감자에게 무차별적 구타를 자행하여 식민지 통치의 폭력적 행태를 드러냈다. [강조 필자]

번역문: Seodaemun Prison was built in a fan-like shape, encircling the Central Warders Office in order for a warder to keep an eye on prisoners at a glance. A 10m-high watchtower was installed at the external court, while a surveillance hole was arranged in the wall of each cell. **Warders** equipped with guns and swords did not hesitate to use violence including severe beatings.

한편 원문의 ‘일본인 간수들’이 번역문에서 ‘Warders’로 번역된 지점은 식민지 권력 구조의 정치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일본인’이라는 표기는 제국주의적 가해 주체를 지시하는 역사적 기표로 기능하지만, 번역문의 일반화된 호칭은 이를 기능적 역할로 재구성함으로써 식민 폭력의 구조적 성격을 희석시킨다. 결과적으로 관람객이 감시 체계와 식민지 폭력의 결합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해석의 층위는 약화된다.

더 나아가 해당 패널에서는 중앙간수소와 옥사가 결합된 패네팀콘의 공간 구조를 보여주는 내부 전경(全景) 사진이 패널 하단 바탕에 연한 흑백 음영의 배경 이미지로 처리되어 시각적으로 후경화되어 있는 반면, 바로 옆 유리 진열장에는 간수들이 실제 사용했던 칼 두 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어 텍스트와 물질적 전시물이 병치되는 구성을 이룬다. 이는 관람객의 시선을 시각적으로 재현된 물리적 폭력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와 규율로 작동하는 패네팀콘의 비가시적 권력 구조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며, 그 의미를 인식할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패널에서는 패네팀콘이라는 핵심 개념어 자체가 생략되거나 약화되는 번역 양상이 나타난다(<표 1>의 ‘안내판 B형’ 중 ‘격벽장 원형 터’, ‘벽면 패널’ 및 ‘도록’의 ‘중앙사(감시와 통제)’ 행 참조). 이는 정보의 축약을 넘어 식민지 감옥이 지닌 근대적 감시 체계의 전형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번역의 불균등성은 매체 및 위치별로 패네팀

티콘 개념이 일관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패놉티콘과 더불어 옥사 내부 및 외부에 배치되어 수감자들을 통제했던 다른 미시적 장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는지 이어지는 절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1

매체 및 위치별 패놉티콘 번역 현황

매체	위치	원문	번역문
안내판 A형	정문 밖 외부/ 보안과청사 앞	원형 감옥형태인 패놉티콘 구조	panopticon-shaped structure
	격벽장	원형 감옥 구조인 부채꼴 모양	fan-shaped panopticon structure
안내판 B형	10·11·12옥사	원형 감옥 구조 ... 부채꼴 모양	quasi-panopticon structure ... in a fan shape
	격벽장 원형 터	부채꼴 모양	×
벽면 패널	중앙사 (감시와 통제)	파놉티콘(Panopticon) 형태 ... 부채꼴 모양	×
도록	4-1 중앙사 (감시와 통제)	‘파놉티콘(Panopticon)’ 형태 ... 부채꼴 모양	×
리플렛	후면(중앙사)	파놉티콘(panopticon) 구조	Panopticon structure
오디오 가이드	112. 중앙사, 파놉티콘	부채꼴 모양 ... 파놉티콘 구조	fan shape ... panopticon structure
	126. 격벽장	파놉티콘 구조 ... 부채꼴 모양	panopticon structure ... fan-like shape

3.2.2 패통 - ‘강제된 침묵’의 은폐와 ‘응급신호’로의 번역

미시적 건축 장치의 번역 양상은 각 감방의 복도 쪽 벽에 설치된 나무 신호 장치인 ‘패통(牌通)’의 매체별 번역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패통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감자가 용무가 있음을 간수에게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고안된 일방향적 신호 장치다. 이는 감방 내부 벽면의 흠 안쪽에 위치한 밀대를 밀면 복도 외벽으로 나무막대가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수감자 간 혹은 간수와 의 언어적 소통이 전면 차단된 감옥 환경 속에서⁶⁾ 간수

가 수감자를 일방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물리적 기구로 작용했다.

해당 장치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 매체에 따라 음역되거나 ‘notice box’, ‘signaling device’ 등 기능 중심의 표현으로 치환되며 의미의 변용을 겪는다. 특히 ‘notice box’라는 표현은 ‘패(牌)를 넣는 통(筒)’이라는 의미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牌通’이라는 한자는 보관함이 아닌 신호 전달 및 의사 전달 기능과 관련된 장치였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 중심 번역이 패통이 작동했던 감옥 환경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패통은 단순한 ‘소통 장치’라기보다, 음성적 소통이 제한된 환경에서 수감자의 의사표현을 최소한의 시각 신호로 압축하여 통제하던 기제로 보아야 한다.

표 2

‘패통’ 번역 현황

위치	제목	번역
11옥사 안내도	11옥사	Notice Box
12옥사 벽면 설명문	패통이야기	PAE TONG
12옥사 입식 패널 설명문	패통	Pactong - Signaling Device
오디오 가이드(117번)	패통	Pae-tong

우선 11옥사에 들어서면 전체 전시 배치도(<그림 1>의 a)가 벽면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외국인 관람객은 “Notice Box”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패통을 공지함이나 의견함과 유사한 행정적 장치로 연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장치가 행정적 편의나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처럼 재맥락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패통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린 12옥사 벽면 설명문(<그림 1>의 b)은 패통을 수감자가 “위급한 상황을 간수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6) 1912년 제정된 ‘조선감옥령시행규칙’ 제36조는 “잡거감방·공장·교장 및 교회당에서는 재감자의 석차를 정하고 교담(交談)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형무소 내 일상 공간에서 수감자 간의 언어적 소통(교담)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했다(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있으며, 영어 번역 또한 “inform to guard in emergenc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수감자가 응급 상황에서 최소한의 구조 요청 체계를 보장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적색 원 안의 도해는 손가락으로 장치를 누르는 동작과 방사형 선 표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현대식 호출 벨과 유사한 청각적 신호 장치를 연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패통은 소리를 내는 장치가 아니라, 감방 내부에서 밀대를 밀면 복도 방향으로 나무 막대가 돌출되는 방식의 철저히 시각적인 신호 체계였다.

그림 1

‘패통’ 관련 안내판

좌측부터 a) 11옥사 전시 배치도 b) 12옥사 벽면 설명문 확대 c) 12옥사 입식 및 벽면 설명문



더욱이 옥사의 구조와 감시 체계를 고려할 때, 이 장치가 오늘날의 응급 호출 시스템처럼 즉각적 대응을 보장하는 체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패통은 음성적 소통이 제한된 감옥 환경 속에서 고안된 최소한의 시각 신호 장치였으며, 이는 수감자의 의사표현이 극도로 제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기능 중심 번역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식민 감옥의 비가시적 폭력성이 축소되는 효과를 낳는다.

‘패통이야기’ 인근에 설치된 12옥사 입식 패널 또한 패통의 작동 방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 감시 체계 속에서 이 장치가 수행했던 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제시된다.

<패통 - 12옥사 입식 패널>

원문: 수감자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담당 간수를 부를 때 사용한 일종의 신호기로 감방 문 옆에 설치되어 있다. 감방 안에서 조그만 구멍 안의 밀대를 손가락으로 밀면 복도 쪽으로 나무 막대기가 튀어나오게 해서 알렸다.

번역문: Paetong was a device installed near the door of prison cells so prisoners could inform of an emergency or call the guard in charge. Inside the cell was a hole with a small rod, which when pushed, would cause a stick to fall out of a slot and protrude into the hallway, sending a visual signal to the guards. [강조 필자]

이에 반해 오디오 가이드에서는 “중양에서 근무하는 간수”라는 표현을 통해 서대문형무소의 중양 감시 체계를 암시하고 있다. 즉 패통은 단순히 개별 감방과 간수 사이의 의사소통 장치가 아니라, 중양 간수소에서 여러 감방을 동시에 감시·관리하는 패놉티콘적 통제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를 단순히 “When the guards saw the stick”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중양 감시 체계라는 공간적·제도적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in case of need”나 “required their assistance”와 같은 표현은 패통을 서비스 호출 장치와 유사한 기능으로 이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민지 감옥 환경의 통제성과 억압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중양 감시 체계라는 구조적 권력 관계를 개인 간 상호작용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번역 사례로 볼 수 있다.

<패통 오디오 가이드>

원문: 패통은 감방 안의 수감자가 용무가 있어 담당 간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신호기’입니다. 감방 안쪽 벽에 설치된 홈에 손가락을 넣고 밀면 복도쪽으로 나무막대인 패통이 튀어나오는 구조입니다. **중양에서 근무하는 간수**가 튀어나온 패통을 보고 해당 감방에 문제가 있거나 용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번역문: A Pa-e-tong was installed in each room for prisoners to call guards **in case of need**. It included a hole on the inner side of the room wall and a wooden stick that popped out of the corridor wall when the inmates put their finger in the hole to push the stick out. **When the guards saw the**

stick, they knew the room had an issue or **required their assistance**. [강조 필자]

이처럼 번역 과정에서 중앙 감시 체계의 공간적 맥락이 탈맥락화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특히 앞서 살펴본 12옥사 입식 패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가이드 원문 역시 패통의 정치적 통제 기능보다 물리적 작동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문 자체의 기능 중심적 서사의 한계가 번역 과정에서 비판적 재맥락화 없이 기계적으로 옮겨지고 중립적 어휘로 치환되면서, 미시적 건축 장치가 수행했던 식민지적 억압 구조의 은폐 효과는 한층 더 손쉽게 증폭된다. 즉, 원문 서사의 한계와 번역문의 개념적 축소가 결합하여 식민 기억이 순화되는 양상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시 개편에서는 패통이 단순한 ‘응급 신호 장치’가 아니라, 식민지 감옥의 중앙 감시 체계 속에서 작동했던 일방적 신호 체계였음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Pactong: The Silent Call’과 같은 역설적 명명 방식은, 소통을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침묵과 통제 속에서 작동했던 이 장치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능 중심 설명에서 나아가, 일제의 근대 감옥 체계가 지닌 구조적 폭력성과 통제 논리를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맥락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2.3 격벽장 - ‘신체 통제’에서 ‘보편 복지’로의 의미 전치

앞서 살펴본 중앙사-10·11·12옥사 외에, 서대문형무소에서 밴담의 패놉티콘 원리가 변용된 또 다른 시설이 바로 격벽장이다. 격벽장은 ‘벽으로 격리된 운동장’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고립과 분리를 통한 통제의 원리를 드러낸다. 그러나 격벽장의 번역은 ‘playground’, ‘exercise facility’, ‘gym’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거나 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공간이 서로 다른 의미 체계 속에서 재맥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3> 참조).

특히 과거 안내판⁷⁾에서 사용된 ‘playground’라는 번역은 격벽장의 통제

7) 2018년 게재 개인 블로그(Miletos & Rose’s BlahBlah) 자료. 필자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최종 답사한 2026년 2월 28일 현재는 해당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았다.

적 성격을 가장 현저히 약화시키며, 식민지 감옥 공간을 일상적 놀이 공간으로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gym’이나 ‘exercise facility’와 같은 현대적 용어는 패놉티콘적 감시 구조와 신체 통제라는 공간의 본질을 신체 단련이나 건강 관리의 기능적 서사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

표 3
‘격벽장’ 번역 현황

위치	번역
안내판(2018년)	The playground of a prisoner
외부 안내판 지도 캡션	Reconstruction of the Exercise Facility (i.e. the “Partition Gym”)
보안과청사 앞 지도 캡션	
방향 안내 표지	
격벽장 안내판	
격벽장 원형 터 안내판	Original Site of the Exercise Facility
도록(2. 1930년대 시설배치도)	Exercise Building
리플렛(후면)	Gyeokbyeokjang
오디오 가이드(스크립트/낭독본)	Gyeokbyeokjang / Exercise Yard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설을 보유했던 호주의 프리맨틀감옥(Fremantle Prison)은 ‘exercise yard’와 함께 ‘exercise cage’라는 표현을 병용하고 있다.⁸⁾ 이는 수감자를 운동의 주체라기보다 감시와 분리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영미권 문화권에서도 감시와 통제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명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서대문형무소의 ‘exercise facility’나 ‘gym’이라는 번역은 해당 공간을 보다 인도적이거나 복지 지향적인 시설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장소가 지닌 식민지 감옥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은 정문 밖 안내 지도 단계에서부터 ‘exercise

8) 프리맨틀 감옥은 19세기 영국 식민 형벌 체계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방사형 운동장(radiating yards)과 중앙 감시대를 결합한 구조로 분리와 감시 원리를 구현했다(Collections Western Australia, 2025). 특히 이곳이 ‘the cage’로 명명된 점은 수감자를 감시 대상이자 비인격화된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facility’, ‘gym’이라는 번역어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관람객은 해당 공간을 수감자를 위한 최소한의 운동·보건 시설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래 사례에서 보듯 격벽장 안내판은 패놉티콘 구조 및 격벽의 감시 기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강조 부분 참조). 그러나 실제 박물관 관람 환경에서는 모든 설명문이 동일한 수준으로 읽히지 않으며, 관람객은 종종 제목이나 핵심 명명만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어 자체는 장소 인식의 초기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격벽장 안내판>

원문: 수감자들이 햇볕을 쬐거나 간단한 운동을 했던 운동장으로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운동할 때 대화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격벽을 세워 수감자들을 분리하고 감시했다. 전형적인 원형 감옥 구조인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가운데에 높은 간수 감시대를 세워 손쉽게 수감자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해방 이후 철거되었던 것을 2011년에 원래 위치에서 약 20m 떨어진 이곳에 본디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번역문: This is a reconstruction of a facility, built in the 1920s, where inmates could do simple exercises. **It was a fan-shaped panopticon structure with partition walls, which were installed to prevent the prisoners from talking to each other or attempting to escape. From an elevated deck where all the partitions meet, the guards could effectively monitor and control prisoners.** The facility was demolished after 1945. In 2011, it was reconstructed in its original shape and style in this location, about 20 meters away from its original site. [강조 필자]

상기 안내판은 ‘panopticon structure’라는 표현을 통해 격벽장의 감시 메커니즘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facility’라는 중립적 명명은 여전히 해당 공간을 기능적 시설 중심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exercise facility’라는 표현은 중앙 감시 체계라는 공간적 권력 구조를 신체 활동을 위한 보조 시설 수준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panoptic exercise cages’와 같은 번역은 중앙사와의 건축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당 공간이 감시의 비대칭성 속에서 수감자를 객체화하는 장치였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 모두 격벽의 기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기 안

내판과는 달리, 격벽장 원형 터에 설치된 아래 안내판에서는 패놉티콘 감시 메커니즘을 설명한 핵심 부분(강조 표시)이 번역에서 삭제되어 있다.

<격벽장 원형 터 안내판>

원문: 일제강점기에 수감자의 운동 시설인 격벽장이 있던 자리이다. **격벽장은 사형장 방향으로 부채꼴 모양이었고, 가운데 사각형 모양은 간수 감시대가 있던 자리이다.** 2011년 지금의 위치에서 뒤편으로 약 20여 m 떨어진 곳에 격벽장을 본디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 [강조 필자]

번역문: Original Site of the Exercise Facility. This was the original site of an exercise facility for prisoners. The facility was demolished after 1945, but was rebuilt in 2011 in its original design about 20 meters away from this location.

영어 번역문만 접한 관람객은 격벽장을 단순히 철거 후 복원된 운동 시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부채꼴 구조와 중앙 감시대라는 핵심적 공간 정보가 삭제되면서, 장소가 지닌 패놉티콘적 권력 구조 역시 함께 비가시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단절은 외국인 관람객이 장소가 지닌 역사적 지표성을 읽어내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식민지 감옥의 폭력성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고통의 경험을 충분히 맥락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랜즈버그(Landsberg, 2004)가 제시한 ‘보철적 기억’은 관람객이 매개된 경험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격벽장 원형 터 안내판의 ‘exercise facility’와 같은 중립적 번역은 공간의 폭력성과 통제 구조를 희석시킴으로써 이러한 공감적 전이의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특히 해당 안내판의 영어 번역을 제외한 다른 외국어(중국어, 일어, 독일어) 번역에서는 부채꼴 구조와 간수 감시대 등 패놉티콘의 핵심 감시 메커니즘이 누락 없이 번역된 반면, 유독 영어 번역에서만 관련 설명이 일괄 삭제된 점은 언어권별로 선택적인 조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국가나 언어권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통용어(lingua franca)로서 다수의 불특정 외국인 관람객에게 노출되는 영어 텍스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박물관 측이 역압의 구체적 서사를 가장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기능 서사로 조정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일 공간을 다루는 오디오 가이드(126 격벽장)에서는 원문과 번역문 모두에서 ‘패놉티콘’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다(아래 강조 부분 참조). 또한 기능적으로는 보건 목적 및 운동을 위한 시설이었을지라도 그 내부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졌음을 명확히 기술한다. 이는 동일한 공간에 대해 매체에 따라 상이한 번역 전략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문제의 원인이 개념적 한계가 아니라 언어권 및 매체별 선택적 조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처럼 안내판의 영어 번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장소성 재구성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배경과 언어권별 실질적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오디오 가이드 - 126 격벽장>

원문: 격벽장은 수감자가 운동했던 시설입니다. 수감자의 피부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햇빛을 쬐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통제와 감시를 위해 격벽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파놉티콘 구조로 설계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격벽이 배치되어 있고 꼭지점 지점에서 간수가 서서 수감자를 감시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 원리를 도입하여 가운데 감시탑을 세우고 원형 모형으로 격벽장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2011년 원래 위치에서 뒤편으로 약 20여m 이전하여 복원했습니다.

번역문: Gyeokbyeokjang is a facility where the inmates exercised. Prisoners needed to get some sunlight to prevent skin necrosis and **this Exercise Yard was built with a partition installed for them to do simple exercises while remaining under control and surveillance. Designed in the standard panopticon structure, its partitions were grouped in a fan-like shape, and at each vertex, there would be a guard observing the prisoners.** After the liberation, this principle was introduced with a circle of partitions and a watchtower in the center. In 2011, it was restored approximately 20 m behind its original location. [강조 필자]

‘격벽장’이 ‘exercise yard’ 혹은 ‘exercise facility’로 번역되는 순간, 해당 공간은 신체 통제와 감시의 장소에서 운동과 복지의 공간으로 의미가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역사적 성격 자체를

재구성하는 번역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은 건축 기호가 담고 있는 권력 관계의 의미망을 조정하며, 식민지 경험과 그 고통의 역사에 대한 해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격벽장이나 패통과 같은 고유한 건축 기호들이 영문 내러티브에서 ‘exercise facility’, ‘signaling device’ 등 일상적이고 범용적인 어휘로 치환되는 현상은 번역학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니더(Neather, 2024, p. 84)가 지적하듯 기억박물관은 자국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리는 동시에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거부감 없이 수용 가능한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House, 2006)의 ‘문화적 필터(cultural filter)’가 작동하며, 번역은 도착어 독자의 기대와 문화적 관습에 맞추어 조정된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례에서 나타나는 ‘일반화 번역(generalizing translation)’은 단순한 정보 조정의 수준을 넘어 장소에 내재된 역사적 갈등과 폭력성을 탈맥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는 건축 기호가 지닌 특수성과 긴장감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이 장소의 역사적 불평함과 식민 권력의 폭력성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기억박물관 번역은 단순히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장소가 지닌 타자성과 역사적 고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서사적 전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례는 건축적 기호의 번역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억의 형성과 역사 인식의 방향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건축적 기호가 기억박물관이라는 전시 체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번역 및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 공간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식민 권력의 작동 방식과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조정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서대문형무소의 입지는 본래의 정치적·역사적 배치성보다 자연 지형과 공간 기능성 중심으로 인식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식민 통제의 전략적 공간성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장소가 지닌 권력의 역사성을 약화시키고, 감시와 억압의 기제를 정치적·식민적 맥락보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이해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는 패놉티콘, 패동, 격벽장과 같은 건축적 장치들이 ‘exercise’, ‘facility’, ‘emergency’ 등 기능적이고 중립적인 어휘로 치환되면서, 신체 통제와 감시의 구조가 복지와 일상성의 영역으로 재맥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번역은 개별 시설의 의미를 단순한 기능 설명으로 축소할 뿐 아니라, 중앙 감시 체계와 같은 공간적 권력 구조를 관리 중심의 근대적 시설 혹은 개인 간 상호작용의 차원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식민 권력의 작동 방식은 구조적 억압의 문제라기보다 기능적 운영 체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번역이 거시적·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공간적 통제 구조를 상대적으로 중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외국인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적 조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장소가 지닌 역사적 긴장과 고통의 층위를 부분적으로 탈맥락화하는 결과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 양상은 단순한 의미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재현 방식을 재구성하는 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 기억의 선택적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번역 역시 단순한 중립적 매개가 아니라 기억 정치의 장에서 작동하는 담론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번역이 지닌 이러한 적극적 재구성의 성격은 번역의 개입 한계와 주체, 그리고 박물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윤리적·이론적 성찰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박물관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타 언어 공동체에 성실히 전달해야 하는 중립성과 충실성의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가 제안하는 번역의 개입과 재맥락화는 번역 주체의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나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갈등의 기억을 전달하는 기억박물관 번역의 주체는 단순한 언어 전환자가 아니라, 큐레이터 및 감수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 공동체이자 수행자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이들이 지향해야 할 번역의 개입 범위 역시, 원문의

단순한 형태적 직역에 매몰되어 타 언어권 독자에게 도리어 역사적 맥락의 공백, 즉 탈정치화를 유발하는 지점을 교정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즉, 갈등과 고통의 역사를 다루는 기억박물관의 번역은 기계적·외연적 중립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원문의 역사 서사를 온전히 복원해 내는 성찰적 관점에서의 충실성이라는 윤리의식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이론적 토대 위에서 박물관 번역의 적극적 서사 전략은 박물관의 공적·사회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며 비판적 기억 공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기억박물관 번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장소의 역사성과 권력 관계를 재현하는 ‘전략적 재현’의 과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한 번역 원칙을 유지하되, 식민 유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큐레이터, 번역가, 역사학자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협업 감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소의 특수한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인권과 평화라는 세계 시민적 담론과 연결할 수 있는 융복합적 서사 전략이 필요하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번역은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그 기억을 현재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매개를 넘어, 역사적 경험을 재해석하고 공유 가능한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문화적 실천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건축적 기호의 번역이 기억의 형성과 역사 인식의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국제적 기억 공간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25. 11. 28.). [온라인가나다] 질문 ‘panopticon의 정확한 외래어표기는 뭔가요?’에 대한 답변. 2026. 4. 21. 검색,

-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24256&pageIndex=1&searchCondition=qsubject&searchKeyword=panopticon
- 밀레토스 with 로즈. (2018. 9. 5.). Miletos & Rose's BlahBlah.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1908~1987의 80년 역사. 2026. 5. 9. 검색,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sakurayyh&logNo=221352740523>
- 박소현. (2020).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전시 내러티브 분석-장소기반 기념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RISS.
- 박영원. (2025).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장소성과 문화적 기억 재현. 서울과 역사, 121, 235-264.
- 박현주. (2021). 국내 박물관 번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구 고찰 및 시론적(試論的) 논의. 통역과 번역, 23(1), 57-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조선감옥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법령]. 2026. 6. 4. 검색,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64230#0000>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4).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8). *The place site of independence and democracy: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3). 세계유산 등재기준 (vi)번의 해석 전략에 관한 연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4). 갈등기억유산 해석과 등재를 위한 핸드북.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 Decision 18 EXT.COM 4. Outcomes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https://whc.unesco.org/en/decisions/8046/>
-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20, 163-192.
- Arnold-de Simine, S. (2012). Memory museum and museum text: Intermediality in Daniel Libeskind's Jewish Museum and W. G. Sebald's Austerlitz.

- Theory, Culture and Society*, 29(1), 14-35.
- Baker, M., & Saldanha, G. (Eds.). (201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 Chen, C-L., & Liao, M-H. (2017). National identity, international visitors: Narration and translation of the Taipei 228 Memorial Museum. *Museum and Society*, 15(1), 56-68.
- Collections Western Australia. (2025, November 6). Fremantle prison site plan. Retrieved November 22, 2025, from <https://collections.wa.net.au/items/f2415a02-1288-43ad-a857-25b7f7045f22>
- Deane-Cox, S. (2014). Remembering Oradour-sur-Glane: Collective memory in translation. *Translation and Literature*, 23(2), 272-283.
- Deane-Cox, S., & Spiessens, A. (2022).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memory*. Routledge.
- Foucault, M. (2005). 감시와 처벌 (오생근, 번역). 나남. (원본 출판 1975년)
- Hindley, C., Grupp, K., & Sylwestrowicz, M. (2024). Generational translation in the Jewish Museum, Berlin: Navigating between history and story. *Babel*, 70(5), 682-703.
- Hou, S. (2023).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memory. *Forum*, 21(2), 213-235.
- House, J. (2006). Text and context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8(3), 338-358.
- Jünke, C., & Schyns, D. (Eds.). (2023). *Translating memories of violent pasts: Memory studies and translation studies in dialogue*. Routledge.
- Kim, K. H. (2020). Museum translation as a political act: Narrative engagement for affective experiences in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in Seoul.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35(5), 551-566.
- Landsberg, A. (2004). *Prosthetic memory: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remembrance in the age of mass cul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ao, M-H. (2019). Translating multimodal texts in space: A case study of St Mungo Museum of Religious Life and Art. *Linguistica Antverpiensia*, 17,

84-98.

- Muzaini, H., & Yeoh, B. S. A. (2005). Contesting 'local' commemor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The case of the Changi Chapel and Museum in Singapore. *Australian Geographer*, 36(1), 1-17.
- Neather, R. (2024). *Translating for museums, galleries and heritage sites*. Routledge.
- Quinn, B., & Ryan, T. (2016). Tour guides and the mediation of difficult memories: The case of Dublin Castle, Ireland. *Current Issues in Tourism*, 19(4), 322-337.
- Ryan, T., & Quinn, B. (2011). Lost in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presenting Dublin's colonial past. 4th Critical Tourism Studies Conference. 2nd - 5th July, 2011. DOI: 10.21427/D70F5K
- Scollon, R., & Scollon, S. W. (2003). *Discourse in place: Language in the material world*. Routledge.
- Song, L. (2022). Panoptic apparatus: A study of the Japanese-built prisons in colonial Taiwan (1895-1945).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21(4), 1244-1261.
- Souto, A. (2018). Experiencing memory museums in Berlin. The Otto Weidt Workshop for the Blind Museum and the Jewish Museum Berlin. *Museum & Society*, 16(1), 1-27.
- Takeda, K. (2020). Rewriting war memory through translation. *Modern Languages Open*, 2020(1): 36, 1-9.
<https://doi.org/10.3828/mlo.v0i0.317>
- Williams, P. (2007).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Berg Publishers.

Architectural codes of colonial heritage and their translation: Memory representation and politics of translation in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Hyunju Park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of architectural codes at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 colonial heritage site and memory museum. Drawing on translation studies and geosemiotics, it analyzes how architectural elements encoding disciplinary surveillance and spatial control are recontextualized across multilingual museum texts. The analysis shows that current translations frequently adopt functional and generalized terms. These choices normalize historically specific, coercive spatial relations into neutral technical descriptions, partially obscuring aspects of colonial violence and diminishing the visibility of the disciplinary logic embedded in the site's architecture. The study argues that translation in memory museums is not a neutral act of linguistic transfer but a representational practice that shapes how colonial heritage is perceived. Translation thu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form and historical meaning, participating in the reconstruction of memory. The study suggests that translations at colonial heritage sites should preserve historical context while avoiding excessive functional reductionism, thereby encouraging more critical engagement with colonial memor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s a transnational site of memory.

Keywords: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politics of translation; colonial heritage; memory representation; geosemiotics

키워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번역의 정치학, 식민 유산, 기억 재현, 장소 기호학

박현주(<https://orcid.org/0009-0005-4863-7320>)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연구교수

beakey72@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26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5월 3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6월 14일